

또 터진 조선일보 주필 筆禍 사건



신문사 논조를 대표하는 주필이 앞장서서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대한민국 애국 국민 모두를 모독했다. 이번 양상훈 필화 사건으로 조선일보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재확인시켜 줬다. 오너가 책임을 깨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일본, 무슨 의도로 미국 동맹국 한국에 선전포고를 하는가’란 글(2019년 8월4일)인데, 한마디로 가소롭다. 그 글은 문제인의 반일 장사를 돕는 싸구려다. 문제인을 압박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그건 전쟁 수법”이라고 날뛰며 반일 감정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그 배경도 이전 우리가 다 안다. 강철석은 그 신문물 장악한 호남 특정 고교 라인의 핵심이다.

실제로 그의 득세를 전후해 조선일보는 김대중(DJ) 비판을 자제하는 등 빠르게 망가졌다. 하지만 조선일보 역대 주필 필화 중 가장 지질은 송희영 사건이다. 그는 기업들로부터 부정확한 뒷돈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을 돕는 사실과 칼럼을 써낸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송희영, 그자도 호남 출신이다. 그렇다면 양상훈 필화 사건은 지난 20년 휘청거려 온 조선일보의 예고된 비극이 맞다.

신문에 단단히 망조가 들었음을 새삼 보여 준다. 편집국 200명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윗물 중의 윗물이 그런 꼴이다. 반복한다. 이번 필화는 대한민국 모독이고, 또 한 번 조선일보의 배신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오너가 중대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얼마 전 영화 ‘간국전쟁’ 흥행은 조선일보의 힘이 8할이었다. 그건 회장 방상훈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 고맙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시적 도움에 불과했다. 이번 양상훈 필화 사건으로 조선일보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재확인시켜 줬다. 그것도 신문의 정체성과 진로 문제다. 오너가 책임을 깨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런 조치를 할까? 안 하면 죄다 죽을 판이다. 그렇다면 하고 안 하고는 이미 조선일보의 선택 영역이 아닐 듯하다. 지켜보겠다.



조우석 칼럼

평론가
전 KBS 이사

앞으로 우리 그 문제를 조선일보 주필 필화(筆禍)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로 하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문사 논조를 대표하는 주필이 앞장서서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대한민국 애국 국민 모두를 모독했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언론의 난을 주동한 것에 이어 같은 맥락에서 또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그 신문 주필 양상훈이 14일자 지면에 실은 칼럼 ‘왼쪽 태극기부대 같은 조국당’이 문제다. 칼럼 내용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이다. 중대범죄 혐의자인 조국이 만든 그 정당에 대한 현재의 적지 않은 지지세가 잘못이란 지적이다. 거기까진 좋다. 문제는 조국이 눈먼 지지를 보이는 세력과, 자유우파 광화문 세력을 왜 싸잡아 비판하는가.

양상훈은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 하고 상대방이면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병리 현상”이라고 근엄하게 훈계했다. 그런 “양쪽 끝단의 사람들”을 대놓고 비아냥거린다. 조국 지지자들은 “왼쪽 태극기부대”이며 그들은 “오른쪽 태극기부대”와 오십보백보라는 식이다. 자유 우파를 극우라고 몰아세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맞다.

양상훈이 본디 안목 없는 데다가 글 자체가 안된다

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양비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준인 줄은 미처 몰랐다. 양비론이란 비겁한 자들이 등 뒤에서 휘두르는 칼인 데다가 그가 반복해 구사하는 태극기부대란 용어도 좌익 세력이 경멸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그는 심정적 좌익이란 뜻일까? 속물 리버럴리스트라서 기회 나면 좌익에 불을 그럴 위인이다. 실은 국내 지식인의 8할이 그런 쪽이다.

어쨌거나 당장 그 칼럼 아래 달린 인터넷판의 200여 개 댓글을 훑어 보라. 분노한 조선일보 독자들의 아우성으로 그득하다. “감도 안되는 자가 조선일보에 기생하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한둘이 아니다. 오늘 그런 개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어느 순간 자유민주주의 깃발 들기를 포기한 채 은근슬쩍 중도를 표방해 왔던 조선일보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즉 감도 안 되는 자가 조선일보에 기생하는 게 아니

다. 그 신문에 딱 맞는 얼치기 논객들이 2.5류 글을 양산해 온 게 문제다. 그걸 지난 20년 조선일보의 역사다. 실제로 역대 주필들은 틈만 나면 사고를 쳤다. 전 주필 김대중의 경우 2년 전 문제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칼럼을 올려 우리 경악케 했다. ‘정치보복 약속환을 끊자’(2022년 4월12일)가 문제의 글이다.

문제인을 사법 처리하지 않는 게 정치 발전이라는 식의 조연을 당시 막 취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다. 태도도 없다. 그때를 전후한 자유민주주의 태도가 맞다. 그 당은 “국민 생명을 적에게 바친 문제인 전 대통령, 단죄해야 합니다. 천인공노할 월북 조작 사건!”이란 의견 광고를 실었다. 바로 그런 게 조선일보가, 맹정신의 국민이 내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김대중의 후임 강철석도 그 꼴이었다. 그걸 5년 전

티빙의 프로야구 중계 월 5500원보다 중요한 건...



데일리 Talk

양준규
산업경제부 기자

요즘 티빙의 프로야구 중계를 두고 말이 많다. 3월 9일 시범경기가 개막될 때부터 중계 영상의 화질과 굵김 현상에 더해 하이라이트 영상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야알못(야구를 잘 모르는 것을 비꼬는 말)’ 논란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하이라이트 영상 태그에 ‘플데(롯데 자이언츠가 하위권을 전전한다는 뜻의 별칭)’와 ‘침성(2015 삼성 라이온즈의 도박 사건에서 나온 별칭)’과 같은 비하적 용어까지 사용하며 정점을 찍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12일 서울 마포구 CJ ENM 텔러트 스튜디오 ‘K볼 서비스 설명회’에서 개막전까지 더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

가 요금제가 출시돼서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 기업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과연 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짚은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야구 유료화는 올해 프로야구 최대의 이슈였다. 이전까지 무료로 야구를 시청하던 사람들의 뇌리에 야구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깊숙이 박혔기 때문에 티빙에 대한 비판의 방향이 야구 유료화를 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구팬의 입장에서 월 5500원은 못 낼 가격은 아니다. 소속팀이 몇 년 연속으로 꼴찌를 하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아마추어 선수에게 홈런을 맞아도 야구팬들은 계속 야구를 봤다. 야구는 이기고 있으나 지고 있으나 화가 난다며 일주일 중 6일을 분노하면서도 이 죽일 놈의 공놀이를 몇 년째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작 한 달에 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굳이 티빙이 월 5500원짜리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9000원 짜리 요금제를 통해서 보게 했더라도 야

구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줬다면 팬들은 돈을 냈을 것이다. 지금 돈 얘기가 나오는 근본적 원인은 티빙의 프로야구 중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다.

티빙에 대한 비판이 커지다 보니 유료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티빙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를 위해 투입한 연 평균 450억 원의 중계권료와 매년 적자를 봐 왔던 프로야구 구단들의 수익 구조 등이 거론된다. 다 맞는 말이고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티빙이 독점 중계를 선언한 이상 프로야구는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고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 콘텐츠의 재미나 편리함이 아닌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는 시각을 기대한다는 건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

콘텐츠 산업의 이상적인 형태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한 후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 없이 보다가 결제 창이 뜨면 흘린 듯이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걸

몰랐다면 사업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지금 같은 결과물을 내놓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시범경기 첫날에 티빙 야구 중계를 접한 야구팬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확실히 티빙이 잡으리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돈을 내고 봐도 괜찮겠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이걸 해내지 못한 순간 다른 요소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시청자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 야구 중계를 똑바로 하지 못한 티빙의 잘못이고 야구 중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플랫폼에 중계권을 팔아넘긴 KBO의 잘못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단 하나, 야구팬들이 만족할 만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3년 동안의 중계권은 티빙에게 있다. 티빙이 중계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지금 나오는 수많은 비판은 중계 초기에 있었던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다. 정규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나 무료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가 아니라 지금 개선해야 한다.

jjyang@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논설실장 박선옥
인쇄인 임재청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도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SK 가스

TEL: (02)6200-8114 FAX: (02)6200-8118
Homepage : http://www.skgas.co.kr